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말씀: 롬8:28

요3:16, 롬8:28

오해: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좋은 일, 기쁜 일만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거니와,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목적, James Knox 참조

1. 알거니와

다시 한 번 읽자. 문맥에 상관없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 ★★★

21절: 썩음의 속박, 22절: 전체 창조물이 신음 중, 23절: 우리도 신음 중, 26절: 성령님도 신음 중
어찌 분위기가 복 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본문은 세상의 현 상태와 그 안에 사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세상의 현 상태: 저주 아래 있다. 땅도 사람도 짐승도, 환경도, 제도도, 사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을 이루고 있지 않다.

모두가 문제투성이다: 병, 슬픔, 죽음, 환경 재앙, 양극화, 진화론, 성경 문제

바울은 이 세상은 이것을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한다. ★★★

창조, 죄, 구원, 영원의 모든 문제를 세상은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 아무 차이가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사회생활: 아무 차이가 없다.

직장 생활, 공부: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 영원, 자유,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끝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고 있다. ★★★

어려움과 고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다. ★★★

아기가 죽었다: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

남편이 암으로 죽어간다: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

8:28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도 새로운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한다.

바울의 고백: 고후4:16-18

고난과 슬픔의 면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

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다.

모세 이야기, 이집트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나쁜 것).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좋은 것).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가졌다(좋은 것),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서 40년간 유랑생활(나쁜 것),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였다(나쁜 것), 떨기나무 체험(좋은 것),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다(좋은 것), 그 이후의 행적: 좋은 것, 나쁜 것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막대기로 내리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못했다(본인에게는 나쁜 것, 우리에게는 좋은 것) : 그에 대한 평가 히11:24-29,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 ★★★

믿는 자에게 이 삶에서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 대언자이다. ★★★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에서의 모든 일: 기쁨과 슬픔과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심지어 실수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선을 이룬다.

세상을 멀리하게 만든다.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깨닫게 해 준다. 하나님과 천국만 바라보게 해 준다. 늘 겸손한 영을 만든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소망을 이룬다.

오 박사 이야기: 이란, 심장병 환자 1300여 명 수술

선: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의 행복, 여기서의 선은 결코 물질적인 행복을 말하지 않는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까? 특성은 무엇인가?

1. 요5:40-42,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다.

오히려 악을 이룬다. 세상에서 다 잘되는 것 같은데 끝이 지옥이다.

2. 요일4:19-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성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

상처받아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 형제자매와의 교제를 하지 않고 산다.

나는 혼자 믿고 말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쉽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시금석이다.

성숙한 성도의 잣대: 다른 형제자매의 유익을 구하는가?

왜 교회 모임을 등한히 하는가? 성령님의 충만이 없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주변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 주변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대적이다.

그것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나가야 한다.

3. 요일5:1-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명령들을 지킨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꾸 오고 싶다.

교제, 예배 모임, 섬김, 헌금, 구제

4.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반드시 있다.

딤후3:12

도대체 왜 믿는 데 이런 고통이 있을까? 슬픔이 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인가?

8:29에 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되는 것 ★★★

히5:8, 사53:3

바르고 선한 분이지만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은가? ★★★

그러면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 의로 인해, 바른 것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한다.

빌3:10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행위와 갈망이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벧후1:4). ★★★

5.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엡1:7-9)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는 것

7절: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주신다.

9절: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10절: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

언제 이루어지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이다. 롬8:28의 문맥도 마찬가지이다(18-19절 참조).

“지금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영향을 미칠까? ★★★

결론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책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어라. ★★★